

2010. 3. 1 제234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3. 1 제234호

문화·디자인

1. 대형 옥외광고 규제 추진 (베를린)

산업·경제

2. 산학협력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시행 (도쿄)

건강·복지

3. 소외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을 위한 펀드 조성 (런던)
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젝트 착수 (베를린)
5. 육아 지원 웹사이트 '아빠의 고민 110' 개설 (도쿄)

도시환경

6. 건축자재를 재활용해 첨단 친환경소방서 신축 (런던)
7.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후변화 실천계획' 마련 추진 (런던)
8. 첨단 수도기술의 해외 전파·국제공헌 사업 추진 (도쿄)

C.o.n.t.e.n.t.s

- 9. 나무의 순환과 재생을 위해 목재 사용 장려 (도쿄)
- 10. 에너지자원 관리를 위한 최고 에너지기구 설치 (중국)

도시교통

- 11. 세계적인 쇼핑가인 옥스퍼드 거리의 보행환경 개선 추진 (런던)
-

문 화 · 디 자 인

1. 대형 옥외광고 규제 추진 (베를린)

○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대형 옥외광고물이 늘어남에 따라 베를린市는 옥외광고물 규제에 나섬. 2010년 2월 9일 市 도시발전국은 옥외광고로부터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함.

-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건축법의 문화재 보호 조항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 광고로 가려지는 경우에만 규제함. 일반 공공공간의 경우에도 광고 기한이 있는 임시 광고물이면 크기에 관계없이 市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음.
 - 이러한 법률적인 허점으로 공사기간이 정해진 대형건물의 공사장 가림막이 도시 공공공간에서 최고의 광고판으로 둔갑하고 있음(사진 참조). 도심의 관광명소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보수공사 때 공사장 가림막이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외관을 가리는 기능보다 대형 광고판으로 더 잘 활용되고 있음. 나아가 공사가 끝난 후에도 가림막이 광고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시 옥외광고물도 市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설치기간도 최대 6개월로 제한됨. 공사장 가림막을 이용한 대형 광고물은 각 자치구의 건축 감독부서가 사전 검토 후 허가하고 도시경관 훼손 여부도 감시하게 됨.
 - 경관 훼손 여부는 시민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미적 감각 수준에 기초해 판단함.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눈에 거슬리거나 너무 도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광고는 공공공간에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1㎡ 크기의 포스터나 2.5㎡ 크기의 작은 광고물은 예전처럼 市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市는 이번 개정안이 광고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함. 공사장 가림막을 광고용으로 대여해 큰 수입을 올리는 건축주에게도 다른 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베를린 소재 기업이 광고가 아닌 산업부문에 재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2/09/155092/index.html)

산 업 · 경 제

2. 산학협력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시행 (도쿄)

- 도쿄都 중소기업진흥공사와 노동산업국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임. 창업지원 시설(인큐베이션 오피스)을 제공하고 지원 거점시설(산업 스포트 스퀘어 타마)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계측, 로봇 등의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음.
- 이 중 산학협력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가 2009년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이 프로젝트는 신상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 대학교가 서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 신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임.
 -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상품을 기획하고 싶거나, 하청을 받아 부품을 만들던 기술을 활용하여 최종소비자 대상 제품을 자체 개발하고 싶거나, 기존 상품과 다른 참신하고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려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함. 이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참가한 대학은 산업기술대학원대학, 시바우라 공업대학, 수도대학 도쿄 등 9개 학교임.
- 都는 2010년에도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새로운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음. 새 상품

기획을 원하는 신청 기업은 都가 4월에 주관하는 매칭 모임에서 대학과 인연을 맺게 됨. 팀이 최종 편성되면 계약을 거쳐 2011년 1월까지 디자인을 개발하며, 기업의 부담액은 약 30만 엔(약 390만 원)임.

- 중소기업진흥공사의 전문직원은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코디네이터는 전시회 출품이나 판로 개척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함. 대학과의 계약이나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都 지적재산종합센터에서 지원함.
- 대학에서는 지도교수가 학생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 학생 디자이너의 참신한 발상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상품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산학협력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모습(2009년)



전통 문양을 활용해 만든 메달(2009년 신상품)

(www.tokyo-kosha.or.jp)

(www.tokyo-kosha.or.jp/topics/1002/0005.html)

(www.metro.tokyo.jp/INET/BOSHU/2010/02/22k29200.htm)

3. 소외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을 위한 펀드 조성 (런던)

- 런던시는 런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이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시장(市長) 펀드’(Mayor's Fund for London)를 조성함. 이 펀드는 2009년 4월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독립적·비영리적·자선적인 성격을 띠.

- 市는 이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은행에 기부를 권유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둠. 한 예로 최근 열린 다보스포럼에 시장(市長)이 참석하여 런던 소재 투자은행인 노무라 은행으로부터 15만 파운드(약 2억 7000만 원) 규모의 기부를 받기로 함. 이 돈은 앞으로 3년 동안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을 위한 ‘토요일 학교’(Saturday Schools)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될 예정임.

- 市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이들 가족의 복지를 위해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이 펀드는 직업이 없는 소외계층이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858)

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젝트 착수 (베를린)

- 베를린에 사는 학부모나 교사의 큰 고민은 컴퓨터·인터넷 이용능력의 탁월함과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구분할지, 과도한 컴퓨터·인터넷 이용이 주는 위험은 무엇인지, 학생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임. 이러한 문제를 상담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베를린시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상담센터는 지금까지 다루어 온 알코올, 마약, 약물, 로또 중독 외에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젝트를 국가보험회사인 기술자보험회사와 공동 개발하고 최근 지원 서비스를 시작함.

- 현재 독일의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98%,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약 90%에 이름. 한 범죄학연구소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1만 5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습관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15.8%, 여학생은 4.3%가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서비스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공함. 청소년에게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상담과 코칭을 하고, 학부모에게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기초지식 제공, 구체적인 자녀 지도방법 훈련, 학부모 간 정보교환 방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을 제공함. 교사에게는 학생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매체 교육과 지도능력을 길러주는 연수를 실시함.
 - 이밖에도 인터넷 중독 예방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청소년기관, 스포츠 센터,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예방 캠페인을 펼침. 2010년 5월에는 현직 교사와 매체교육학을 전공한 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콘퍼런스를 옴.
-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市 건강·환경·소비자국은 이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어 청소년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중독되지 않는 적절한 범위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기를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1/20/152957/index.html)

(www.berlin-suchtpraevention.de/front_content.php?idart=111)

5. 육아 지원 웹사이트 ‘아빠의 고민 110’ 개설 (도쿄)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산후 우울증에 걸린 산모의 자살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육아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심도 있는 지원이 필요한 때임. 도쿄都도 미혼모나 장애아 부모, 저소득층도 출산과 육아를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이도록 사회 전체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都 육아위원회의에서는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도쿄’란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시책을 실시함. 그 중 집안일과 육아에 협조적인 남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음.

- 2009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Fathering Class’를 열어

머지않아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함. 이 프로그램에서는 ‘미래에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즐기자’, ‘내가 아빠가 되면?’ 등의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함.

- 都是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아빠를 위해 2010년 2월 10일 ‘아빠의 고민 110’이란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함. 110은 원래 전화 민원이나 긴급 신고용으로 이용하는 긴급 전화번호로, 여기에서는 육아문제에 대해 무엇이든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란 의미로 사용되었음.

- 이 사이트에서는 직접적인 육아문제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육아와 일(직업)의 양립에 관한 고민 등도 상담할 수 있음. 지금까지의 상담사례를 모은 ‘아빠의 육아 FAQ’ 항목도 마련해 아빠가 좀 더 즐겁게 아이를 키우도록 다양한 육아 관련 칼럼과 체험사례, 육아 정보 등을 제공함.
- 都是 육아로 고민하는 남성에게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함으로써 ‘사회와 함께 하는 육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tokyo.kosodateswitch.jp/events/fathering-class)

(tokyo.kosodateswitch.jp/papa110)

웹 2.0 기반의 市 홈페이지와 블로그 개설 (런던)

- 런던市는 市 행정에 시민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행정과 시민 간 상호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市 홈페이지 ‘london.gov 2.0’을 새롭게 구축하고 市 블로그(City Hall Blog)도 개설함.
- 웹 2.0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한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와 도시정책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런던 정보 스토어’(London Datastore) 프로젝트의 토대가 됨.
- 市는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설계하였고 市 블로그는 매주 업데이트함.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시민과 함께 해결할 계획임.

도 시 환 경

6. 건축자재를 재활용해 첨단 친환경소방서 신축 (런던)

- 보통 200~300년 된 건물이 많은 런던에서 거의 10년 만에 신축 소방서가 들어섬. 런던 방재청이 신축한 첨단 친환경소방서는 헤이버링(Havering)의 해롤드힐 소방서로서 빗물 수거시스템, 태양광집열판,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등의 설비를 갖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3% 줄일 것으로 기대됨.
 - 해롤드힐 소방서는 팔콘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 3개 동을 활용하여 친환경건물로 지음. 건축자재를 대부분 재활용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건축비(30만 파운드, 약 5억 3000만 원)를 최대한 줄임.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도 대폭 줄인 점도 높이 평가받음.
 - 첨단 친환경건물인 해롤드힐 소방서는 기후변화와 재해 발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춤. 이 소방서는 이와 같은 첨단 환경설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국 건축연구소가 수여하는 우수 건축물상(賞)을 받음.
 - 그동안 런던市와 런던방재청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데 주력해 왔음. 市는 2009년 12월 소방서 10개소, 경찰서 10개소, 교통공사 건물 22개소 등 市 산하 건물 42개소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건물로 개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市는 먼저 기존 소방서와 방재청 산하 건물 10개소를 개조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 줄이고 수천 파운드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함. 1단계 사업이 끝난 후에는 59개소 건물을 추가로 개조할 계획임. 현재 런던 시내 공공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350만 톤에 달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opens-london's-first-new-fire-station-decade-0)

7.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후변화 실천계획’ 마련 추진 (런던)

- 런던시는 ‘기후변화 실천계획’ 2개 안에 대한 대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끌어내고 있음.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市가 해야 할 역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유명인사의 인물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음. 市는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함.
 - 유명인사가 말하는 기후변화 대책은 저명 사진작가가 찍은 인물사진의 설명 형식으로 市 청사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市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음. 2010년 3월 19일 까지 열리는 이 사진전에는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배우 엠마 톰슨과 마이클 윈, 캔터베리 대주교 등이 참여함.
 - 기후변화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는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음. 市는 기후변화 홈페이지(www.london.gov.uk/climatechange)를 개설해 의견 개진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대책에 관한 온라인 찬반투표 등의 방법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발표된 기후변화 실천계획은 ‘기후변화 적응전략’(Mayor’s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과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전략’(Mayor’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Energy Strategy) 등 2개 안임.
 - 적응전략은 런던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녹지 확충, 효율적인 물 이용, 홍수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기온 상승에 따른 더위 피해 방지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2010년 2월 9일부터 3개월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가을에 최종안을 확정함. 에너지전략은 교통수단, 가정, 사업장, 신축 건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3월에 의견수렴을 시작함.
 - 市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천계획안을 시장(市長)이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림. 이는 첨단 인터넷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임. 동영상에서 시장은 2025년까지 런던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개인이나 단체가 직·간접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60%가량 줄이고 수만 개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calls-londoners-ideas-help-tackle-climate-change)

(www.london.gov.uk/mayor/priorities/ccas/adaptation.jsp)

(www.youtube.com/MayorsOfficeLondon)

8. 첨단 수도기술의 해외 전파·국제공헌 사업 추진 (도쿄)

○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첨단 수도기술과 운영 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에서는 해외 홍보를 담당할 민간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도쿄都 수도국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월 22일 ‘도쿄 수도(水道) 경영계획 2010’을 마련함.

- 이 계획은 2010년부터 3년간 도쿄都 수도국의 새로운 경영계획임. 이 계획에 따르면 도쿄 수도의 경영방침은 도민의 생활과 도시활동을 지지하는 라이프라인(Life-line)을 활용해 더욱 안정적인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라이프라인이란 인간 활동의 근간이 되는 전력,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운송과 교통망 등 선형(線形)으로 구성된 사회 및 일상생활 기반시설을 통칭하는 말임.

· 주요 과제는 크게 ① 안심·안정, ② 광역·국제, ③ 고객 서비스, ④ 차세대, ⑤ 경영기반 등으로 나뉨. 이 중 광역·국제 사업의 일환으로 도쿄 수도서비스 주식회사를 활용해 ‘국제공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이 회사는 都 수도국이 전체 지분의 51%를 출자한 감리단체로, 첨단 수도기술이나 운영 노하우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헌 사업을 수행함.

- 국제공헌 사업은 크게 ① 해외사업 조사연구회 설치, ② 도쿄 수도 국제미션단 파견, ③ 비즈니스 모델 전개·참가 등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4월에 해외사업 조사연구회를 설치하고 해외 수도사업 고객의 요구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도쿄 수도 국제미션단을 2010년부터 3년간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10개국에 파견함. 컨설팅과 시설관리 사업

수주를 목표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치고 향후 컨설팅, 투자, 플랜트 건설, 유지관리 등을 포괄하는 전체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 都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2012년까지 都 수도국과 도쿄 수도 서비스주식회사의 대응체계를 강화함. 앞으로는 직원 해외 파견에서 나아가 좀 더 구체화된 국제공헌 사업을 펼쳐 전 세계적인 물 문제에 실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임.

(www.waterworks.metro.tokyo.jp/water/torikumi/plan2010/pdf/plan2010_all.pdf)

(이재준, 방재학개론, 동화기술, 2008. 5. 8)

(www.waterworks.metro.tokyo.jp/press/h21/press100210.pdf)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2/20k2a900.htm)

9. 나무의 순환과 재생을 위해 목재 사용 장려 (도쿄)

- 도쿄都 타마지역 인공림은 대부분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50년생 전후의 나무로 구성됨. 하지만 목재가격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벌채도 정제되고 이로 인해 20년생 이하의 젊은 삼림이 전체의 약 2%에 지나지 않는 등 삼림이 점점 고령화됨. 삼나무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저하되고 다량의 꽃가루가 공중으로 흩어짐. 이에 도쿄都는 2006년부터 고령화된 삼나무를 베어내고 꽃가루를 적게 발생하는 삼나무를 심는 ‘꽃가루가 적은 숲 조성 운동’을 펼침.
- 이 운동은 꽃가루의 발생률을 줄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목재 사용을 장려해 나무의 순환과 재생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都는 먼저 은행계좌 입금, 1통화당 105엔(약 1400원)을 내는 전화모금, 교통카드를 이용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삼림 정비비용을 마련함. 삼림 정비비용을 기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협정시설’을 10년간 사원 연수장소 등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숲 조성 서포터’도 모집해 이들에게는 협정시설 우대 이용권을 제공함.
- 都는 이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도쿄 나무 종이’를 제작함. 나무 종이는 타마지역의 간벌재(間伐材) 25%와 재생지 75%를 혼합하여 만든 것임.

- ・ 都는 이 종이를 이용해 ‘나무나 목재를 사용하면 건강한 숲을 조성할 수 있고, 건강한 숲은 꽃가루를 적게 날리게 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는 내용의 팸플릿을 만들어 2010년 2월 15일부터 도립·시립 도서관, 대학 구내서점 등 약 70개소에 배포함. 3월부터는 지하철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2~3월에는 도쿄 도민은행 6개 지점에 ‘타마 목재 홍보 부스’(사진 참조)를 설치함.



-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삼림에서의 벌채-이용-재배-육성의 순환고리를 만들고 이산화탄소 흡수 등 삼림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삼림은 크게 국토·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순환사회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2/20k2a401.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2/20k2a400.htm)

(www.rinya.maff.go.jp/seisaku/kihonkeikaku/houkou.pdf)

10. 에너지자원 관리를 위한 최고 에너지기구 설치 (중국)

- 중국 정부는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고 기관을 설치함. 2010년 1월 27일 중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정책 결정과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가에너지지도자그룹(國家能源領導小組)을 국가에너지위원회(國家能源委員會)로 전환함.
-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개발전략 연구와 수립, 에너지 개발과 국제 협력에 관한 중대 사항 심의와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음.
 - ・ 총리 직속기관인 이 위원회는 구(舊) 국가에너지지도자그룹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없는 고위급 협의기관임. 하지만 정부부처와 국영기업의 대표자로 구성됨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국가에너지지도자그룹의 장(長)이었던 원자바오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정부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산업화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교통운송부,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등 21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장이 위원을 맡음.

- 실질적인 협의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에너지 분야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강화되고 주요 정책의 결정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해외의 에너지 자원 확보 시 정부부처 간 신속한 정책조율로 국영기업이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http://stock.hexun.com/2010-01-28/122518255.html>)

(www.cnr.cn/china/gdgg/201001/t20100131_505968419.html)

도 시 교 통

11. 세계적인 쇼핑가인 옥스퍼드 거리의 보행환경 개선 추진 (런던)

- 런던시는 런던의 상징적인 거리이자 세계적인 쇼핑가인 옥스퍼드 가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임. 시는 버스, 승용차 등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정체가 심해지고 보행환경과 가로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평가하고 이 지역의 혼잡도를 완화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왔음.
- 옥스퍼드 가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런던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미래의 가로: 옥스퍼드·리젠트·본드 거리 혼잡도 경감’(Street Ahead: Relieving Congestion on Oxford, Regent, Bond Street)이란 책자를 발간함.
 - 이 책자에서는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과 열악한 가로 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쇼핑·레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시와 웨스트민스터 자치구는 구체적으로 버스노선 조정, 운행버스 수 감축, 셔틀버스 운행, 보행 전용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이 대책을 시행하면 옥스퍼드 거리가 보행자

중심 가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옥스퍼드 거리를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하면 런던에서 명실상부한 중심 공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옥스퍼드 거리는 첨두시간의 경우 약 30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평균속도가 시속 약 6km에 불과해 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time-get-moving-oxford-street-congestion-1)